

둘 다 교육과정 자율성 크지만 고교 유형 및 선발 과정·학비 차이

둘 다 일반고 대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자사고는 특목고와 같은 고교 유형 중 하나이며, 자율학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가 규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율학교에는 한국전통문화고, 남원국악예술고, 한국마사고 등 예체능 계열도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재단의 재원과 학비로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학비가 일반고 대비 높습니다. 반면 자율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기에 학비가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입학 전형도 다소 차이 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와 서울 외 지역 단위 자사고는 대개 단계별 전형을 진행하며 1단계에서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와 달리 자율학교는 대부분 교과 성적만으로 당락을 결정하고요.

현재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는 광양제철고 김천고 민족사관고 북일고 상산고 인천하늘고 외대부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10곳입니다.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농어촌 자율학교는 충남 공주사대부고와 한일고, 경북 안동풍산고 등 39곳이 고요. 자사고와 자율학교 모두 후기고에 속해 이중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학교의 차이는?

아이가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데,
주변에서 자율학교도
추천받았어요.
자사고와 자율학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취재 최은정 리포터 lagom@naeil.com
자료 고입 정보 포털·학교 알리미

More tip

**전국 단위 선발 고교
진학 전 성비 확인해야**
고교 진학 시 성비를 따지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습니다. 특히 자사고 지원을 희망하는 여학생이라면, 지원 가능 학교나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알아둘 만합니다. 전국 33개 자사고 중 남고는 16곳이지만 여고는 서울의 세화여고 이화여고 2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공학이 15곳 있지만, 상대적으로 남학생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특히 대전은 지역 내 자사고 2곳 모두 남고라 여학생이 지원할 자사고가 없습니다.